



무등기 사회인야구

60일 대장정 돌입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의 새 역사를 열 광주일보 주최 '제 1 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가 18일 오전 북구 일곡동 OB 맥주주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두 달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 관련기사 16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벌써 5.5대 1…내년 총선 대격전

광주·전남 20곳 110여명 거론 '물갈이' 기대속 입지자 더욱 늘 듯

### 대부분 민주당…현역 지지도 낮은 지역 경쟁 치열

제19대 총선은 6개월여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각 선거구의 입지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역 물갈이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입지자들의 숫자는 총선이 다 가을수록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

1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시 8개 선거구와 전남도 12개 선거구 등 광주·전남 총 20개 선거구에서 자전 타천 거론되고 있는 입지자들은 모두 110여 명으로, 현재 평균 5.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 중 광주가 40여 명으로 5.5대 1의 경쟁률을, 전

남이 70여 명으로 5.8대 1을 각각 보였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과 민노당 각각 10여 명,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 각각 4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민주당 공천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 공천 경쟁이 어느 때보다 더욱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에서는 현역인 김영진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입지자들이 자전 타천 거론되고 있는 서구 을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과 오병윤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어서 공천 경쟁

이 본선 경쟁보다 더 뜨거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현재 김영록 의원을 포함해 최대 10명 가까이 입지자들이 거론되고 있는 해남·진도·완도 선거구가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순천 ▲광양 ▲고흥·보성 등 3곳의 선거구가 각 8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담양·곡성·구례

지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대부분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광주일보 주석특집 여론조사 <본보 9월자 1, 3~5면>에서도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서구 을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의 원을 지지하겠다'는 비율이 20.5%로 8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남에선 12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박상천(고흥·보성), 유선호(장흥·강진·영암) 의원이 20%대의 지지를 보이면서 최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또한, 지난 4·27 재보선에서 애원연대를 통해 뒤늦게 국회에 입성한 김선동(민노·순천) 의원도 20%대 지지를 떠올렸다.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우윤근(광양) 의원도 내년 총선에 아관연대에 불만을 품고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당시 출마자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 또 한 번의 '리턴매치'가 예상된다.

담양·곡성·구례는 현역인 김효석 의원이 일찌감치 수도권 출마로 방향을 틀면서 입지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20개 선거구 중 입

## 정부, 정전 피해 보상절차 착수

### 20일부터 피해 접수…경실련 집단소송 추진

정부가 지난 15일 발생한 초유의 정전 사태와 관련해 피해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5·6면〉

보상 대상은 이번 정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와 상가, 일반 소비자 등이다. 보상 신청은 오는 20

일 오전 9시부터 받는다.

18일 지식경제부는 "이번 정전으

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상가 및 일반 소비자 등에 대해 개별

피해사실 조사를 통해 보상키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중소기업 중

양회,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한국

전력 및 전력거래소 관계자 등으로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해 보상지침

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외부전문가가 총괄하는 '전력위

기 대응체계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

어 단전 조치 등 위기상황 때 단계적

보고가 아니라 기관장 이하 전체 직급이 동시에 보고받을 수 있는 즉시 보고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정전 사태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전체 수용가의 절반 이상이 큰 불편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15일 오후 3시35분부터 오후 7시56분까지 전체 전기수용가 166만3000여 가구 중 90만9000여 가구(54.7%)에 대해 순환정전을 단행했다.

정부의 강제 단전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와 한국전력의 대응을 지켜보고, 국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은행은 첫 거래일인 19일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를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금융위는 긴급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2000만 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추가로 영업정지 되는 저축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선정(3년연속)

■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대학(3년연속)

■ 자연과학(보건)계열 브랜드 학과 선정 특성화 대학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펼치는  
서남권의 핵심 역량대학

## 목포과학대학교

[www.mokpo-c.ac.kr](http://www.mokpo-c.ac.kr) 입학관리처 061)270-2541~5

##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수시1차	수시2차	수시3차
원서교부 및 접수	2011. 9. 8.(목)~10. 5.(수)	2011. 10. 17.(월)~11. 1.(화)	2011. 11. 14.(월)~12. 2.(금)
합격자 발표	2011. 10. 13.(목)	2011. 11. 4.(금)	2011. 12. 6.(화)
합격자 등록	2011. 12. 12.(월)~12. 14.(수)		

정시모집	정시1차	정시2차	정시3차
원서교부 및 접수	2011. 12. 22.(목)~2012. 1. 3.(화)	2012. 1. 9.(월)~31.(화)	2012. 2. 13.(월)~27.(월)
합격자 발표	2012. 1. 6.(금)	2012. 2. 3.(금)	2012. 2. 28.(화)
합격자 등록	2012. 1. 10.(화)~12.(목)	2012. 2. 8.(수)~10.(금)	2012. 2. 29.(수)~3. 2.(금)

### 원서접수 및 지원방법

수시모집(1, 2, 3차) 및 정시모집(1, 2, 3차)

▪ 창구접수\_본 대학 입학관리처

▪ 우편접수\_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 입학관리처

▪ 전화문의\_061)270-2541~5 / FAX\_061)273-7552

▪ 인터넷접수\_<http://www.jinjakapply.com>, [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 [www.apply114.com](http://www.apply114.com)



목포과학대학교  
MOKPO SCIENCE COLLEGE